



윤대성 월간댄스포럼 편집장



송현민 월간객석 편집장(좌장)



성혜인 한국음악 평론가

일시 및 장소 : 2024년 8월 7일 아트코리아랩 7층 회의실

KOPIS 데이터를 살펴보면,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은 9,168건의 공연과 57,081회의 상연이 이루어졌으며, 약 977만 매의 티켓이 예매되었고, 약 6,288억 원의 티켓판매액을 기록했다. 연극, 뮤지컬, 서양음악(클래식), 한국음악(국악), 무용(서양/한국), 복합, 대중음악, 대중무용, 서커스/마술의 총 9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 장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였지만, 연극, 뮤지컬, 한국음악(국악), 무용(서양/한국)의 티켓예매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 한국음악/무용 공연실적 및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구분	공연건수		상영횟수		티켓예매수		유료 티켓 예매 비중		티켓판매액	
	(건)	전년 대비 증감률	(회)	전년 대비 증감률	(매)	전년 대비 증감률	비중 (%)	전년 대비 증감률	(천 원)	전년 대비 증감률
한국음악 (국악)	전체	497 ▲8.3%	816 ▼7.7%	169,143 ▼4.0%	61.80% ▼1.2%	2,110,932 ▼2.7%				
	기악	393 ▲0.8%	687 ▼12.3%	143,471 ▼7.2%	61.40% ▼2.5%	1,555,144 ▲0.3%				
	성악	104 ▲50.7%	129 ▲27.7%	25,672 ▲18.2%	64.20% ▲7.0%	555,789 ▼10.2%				
무용 (서양/한국)	전체	267 ▲9.4%	564 ▲22.3%	185,439 ▼0.9%	74.70% ▼1.4%	5,997,930 ▼16.2%				
	발레	86 ▲2.4%	180 ▲19.2%	94,964 ▲0.3%	81.10% ▼2.4%	3,486,669 ▼25.2%				
	한국무용	88 ▼12.0%	166 ▼4.6%	46,182 ▼28.3%	67.20% ▼3.6%	1,035,036 ▼16.6%				
현대무용	93 ▲55.0%	218 ▲60.3%	44,293 ▲57.5%	68.70% ▲6.3%	1,476,225 ▲17.9%					

한국음악과 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음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연건수는 증가하였지만, 상연횟수,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유료 티켓 예매 비중 또한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무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공급량(공연건수, 상연횟수)은 증가했지만, 수요량인 티켓예매수, 티켓 판매액은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음악(국악)과 무용(서양/한국)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과 관객 흐름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통해 두 장르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Q

2024년 상반기 한국음악/무용 공연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성혜인 (국악)

상반기 한국음악의 분위기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립창극단을 비롯한 창극과 성악 공연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창작 성악 공연들이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이다.

둘째는 '김영임의 소리 효(孝) 대공연'처럼 특정 브랜드로 자리 잡은 공연들이 티켓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한국음악 상반기 티켓판매액 TOP10>에는 없지만, 장사의 선생님 공연도 그 예다. 특히 김영임 선생님의 경우 올해 데뷔 50주년이기도 하고, '효'라는 주제로 특화된 공연을 선보이면서 5월 가정의 달과 맞물려 티켓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세 번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설 공연들이 티켓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음악 상설 공연의 전반적인 특징은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설 공연이 감소하는 추세다.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설 공연들이 폐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에 공연되었던 '엔통이의 동요나라 2'도 올해는 공연 대신 각 구를 순회하며 영상 상영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음악 상설 공연도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상설 공연 자체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티켓예매수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2024년 한국음악 상반기 티켓판매액 TOP10

구분	작품명	공연기간	공연장
1	국립창극단, 만산: 페이퍼 샤먼	2024.06.26 ~ 2024.06.30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2	김영임의 소리 효(孝) 대공연 [대구]	2024.05.18 ~ 2024.05.18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
3	김영임의 소리 효(孝) 대공연 [성남]	2024.04.27 ~ 2024.04.27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4	국립창극단, 리어	2024.03.29 ~ 2024.04.07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5	세향국악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4.03.16 ~ 2024.03.16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6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전통예술: 김시화 남성창극 살로메	2024.02.02 ~ 2024.02.04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7	토요명품	2024.01.06 ~ 2024.12.28	국립국악원 우면당
8	ACC 초이스, 남성창극 살로메	2024.05.30 ~ 2024.05.3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1
9	삼청각 수요상설공연, 三清·삼청	2024.02.14 ~ 2024.12.25	삼청각 일화당
10	에멕 악가무, 천명예인	2024.06.04 ~ 2024.06.05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

윤대성(무용)

KOPIS는 전산발권된 티켓예매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기에는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무용계에서는 유의미한 중요한 흐름이 존재한다.

티켓예매수 또는 티켓판매액 상위에 노출되지 않은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은 무용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공연이다. 대규모 신작을 선보이는 한국무용대전과 대한민국발레축제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발레 안무가들에게는 대한민국발레축제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이 공연들의 공연장 규모가 작아 티켓판매 상위에 올라오지 않아 아쉽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티켓예매 데이터로만은 무용계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대중들은 익숙한 레퍼토리나 브랜드에 집중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신작 이슈와 시장 및 트렌드 변화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변화는 내한 공연의 감소다. 하지만, 내한 공연이 줄었음에도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국내 공연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창작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순수예술 공연의 특징 중 하나가 상업적인 동기보다 개인의 예술적 동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전자로 티켓 발권을 하는 것보다 후원을 받거나 주변 사람들이 일정 비용 금액을 지불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파크와 같은 티켓예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노동이 더 들기 때문에 전자발권을 하지 않아 아직 KOPIS 예매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공연들도 많은 실정이다. 한국음악이나 무용 같은 순수예술 장르들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Q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에서 관객들을 관심을 일으킨 공연이나 라이징 스타가 있었나?

성혜인 (국악)

사실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주목했던 공연들은 꼭 완성도가 높다기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공연은 그래도 가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공연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공연들은 티켓 예매수 또는 티켓판매액 상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쿼드 초이스' 같은 경우는 극장 수용 객석수(372석)가 작아서 전체 티켓예매 데이터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다. 또한,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들은 한국음악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공연이고,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공연예술창작산실 공연도 재밌게 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연들은 아니었다. 이렇듯 몇몇 지역 공연들이 KOPIS 데이터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아쉽다.

반면, 'ACC 초이스, 남성창극 살로메'가 티켓판매액 상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김준수 씨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현상은 일종의 신드롬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 '2024 여우락 페스티벌'에서 김준수 씨 공연을 봤는데, 팬들이 첫 노래만 듣고도 무슨 곡인지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의상만 보고도 다음에 무슨 노래를 부를지 알고 있었다. 팬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돌 팬덤 현상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심지어 팬들이 판소리 대목까지 알고 있어 정말 신기했다.

2024년 하반기의 국악 공연시장에는 '싱크 넥스트24', '여우락 페스티벌', '전주세계소리축제' 등의 공연들이 기다리고 있다.

송현민(좌장/국악)

앞서 언급하신 대로 전문 장르와 대중 장르를 함께 고려했을 때 김준수 씨의 영향력은 확실히 크다. 슈퍼밴드 출연으로 알려진 박다울 씨처럼 전문 분야에서 내공을 쌓고 인기를 얻은 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갈 가능성도 확인했다.

물론, 장르 통합을 이룬 JTBC '걸스 온 파이어' 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다양한 장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가지 장르를 간접적으로 접하고 관심을 두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예술가로 인정받기 위해 콩쿠르나 경연 대회 입상 경력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예술계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Q

전체 공연시장에서 한국음악과 무용(서양/한국)의 티켓예매수 비중은 다소 적은 편이다. 관객들이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 유료티켓 비중 늘리기 위한 노력들이 있나?

성혜인(국악)

한국음악에 관심을 유도하려면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나 인프라 구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거시적인 교육이나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안타깝다. 물론 타 장르의 유료 관객 확보 사례를 참고하여 스타 캐스팅이나 타 장르와의 협업 등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관객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관객이 부족한 것은 공연예술 분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립영화나 문학작품을 즐기는 관객층도 제한적인 것처럼, 예술의 모든 장르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다. 비평적 안목을 가지고 예술을 깊이 있게 향유하는 관객층도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음악 분야에서도 이러한 소수의 관객층에 집중하여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과 기획을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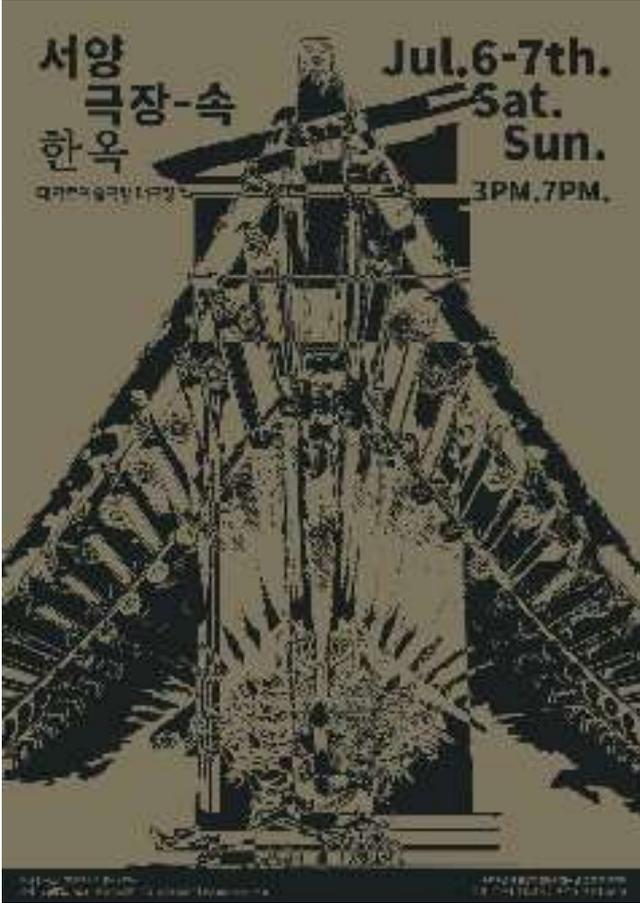
또한, 관객 개발과 관련하여 티켓예매수나 티켓판매액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평론가들이 주목하는 공연의 관객 추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계층의 관객들이 유입되는지, 재관람율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면 한국음악계 내부의 발전 동력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 없이, 인프라 구축이나 마케팅 전략만으로는 관객개발에 한계가 있다. 한국음악에 대한 경험을 쌓고 미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이 중요하며, '여우락' 같은 입문 공연 관람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면서도 비평적 안목을 갖춘 관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획들이 단체나 공연장 차원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대성(무용)

최근 무용 공연들이 생존하기 위해 차별화의 하나로 참여형 공연이 등장하고 있다. 참여형 공연이란, 무대-관객의 일반적인 관람 방식을 벗어나 관객과 공연이 융합형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의 공연들은 1회차당 수용할 수 있는 관객 수가 일반 공연에 비해 적기 때문에 보통 무용공연은 1~2회차지만, 참여형 공연은 5~6회차 공연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5~6회차 공연이 모두 매진되지만 수익으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다.



창작그룹 우보만리의 '서양극장 속 한옥'이라는 공연은 한국 무용가가 서양극장의 무대에서 직접 큐레이터를 하는 색다른 방식으로 공연이 진행되었다. 서양극장의 구조와 한옥을 독특한 시각에서 재해석했다. 공연은 매우 좋았지만, 공연 하나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50명에 불과해서 아쉬웠다.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이라 더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제를 확장해 가며, 관객들에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안무가가 연습해서 알려주는 방식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출처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홈페이지

일례로,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면서 이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한 공연에서는 '공연 밀착 움직임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안무가가 만든 신작을 일주일 전에 미리 배워보는 방식이다. 이 클래스는 무료로 제공되지만, 공연은 유료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클래스를 참가하려면 미리 티켓을 예매해야 했다. 티켓 가격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음에도 티켓예매가 증가했다. 이는 움직임 클래스를 통해 관객들이 공연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용 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이 관객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또한, 무용 교육과 관람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이처럼 관객개발을 하려면 관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KOPIS 데이터에는 관객의 정보가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DX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잘 가공하여 투명하게 오픈할 수 있게 된다면, 공연에 대한 다각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송현민(좌장/국악)

윤대성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주제와 소재 확장, 관람 방식의 전환, 사전 교육을 통해 작품을 배우고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 쪽 사람들, 특히 건축계 학생들이 봐야 할 공연이 두 가지로 하나는 노먼포스터 전시회였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서양극장 속 한옥' 공연이 추천되었다는 점에 놀랐다. 이러한 노력이 티켓예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Q

2024년 하반기 공연시장의 전망은 어떤가.

윤대성(무용)

공연시장 전망이라는 어휘에 충실해지려면, 무용계에서는 발레 작품 수를 봐야 한다. 공연시장에서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은 하반기 레퍼토리가 완전히 겹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시기와 레퍼토리가 겹치는데, 가을에는 '라 바야데르', 겨울에는 '호두까기 인형'을 동시에 선보인다. 이 작품 중 '호두까기 인형'은 단연 하반기 티켓판매액이 가장 높은 공연이다.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한 해의 예산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세부 장르로 살펴보면, 발레는 서울시발레단 창단 공연이 중요한 사건으로 뽑힌다. 서울시발레단이 컨템포러리 발레 붐을 얼마나 일으키냐에 따라 관객들에게 컨템포러리 발레라는 장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대무용은 국립현대무용단이 올해부터 진행한 '코레오커넥션' 페스티벌이 기대된다. 서울을 제외한 각 지역의 작품을 페스티벌형식으로 선보여 무용 공연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용은 저작권 문제로 중단되었던 '향연' 작품이 오고무 사용료를 내며 창작진 간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다행히 재공연을 하게되었지만, 6년 전과 동일한 퀄리티를 재현하여 공연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시 무용단의 국수호 안무가와 김재덕 음악감독의 새로운 작품도 기대할 만한 소식이다.

성혜인(국악)

하반기 한국음악 공연계는 다양한 축제와 공연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예정이다.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우락 페스티벌'과 '싱크 넥스트24'는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시즌을 여름으로 변경하며 명실상부한 썸머 페스티벌이자 예술 축제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축제와 공연들이 한국음악계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립창극단의 공연들도 하반기 공연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인기 레퍼토리 공연은 물론, 이자람 씨의 '노인과 바다'와 같은 화제작도 예정되어 있어 티켓예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악단광칠의 국내 투어 콘서트도 주목할 만한 공연이다. 해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쉬웠다고 들었다. 이번 국내 투어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예술가들의 활동에도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지원금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예술가들이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박다함이나 박인선과 같이 꾸준히 신작을 발표하고 지역 공연을 이어가는 예술가들의 열정이 한국음악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는다.

송현민(좌장/국악)

KOPIS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년 연말 시즌이 되면 클래식이나 무용 쪽은 '라 보엠', '박쥐',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고정 레퍼토리 공연들이 흥행하면서 두각을 나타낸다. 하지만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이처럼 연말 시즌에 기대할 만한 고정 레퍼토리 공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음악 장르는 무용 장르처럼 '연말'처럼 특정 시점에 대한 티켓판매 특수를 누릴 수 있는 작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통예술 분야도 연말 시즌에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표 레퍼토리 공연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